

HANEULMUN NEWS 교회소식

하늘문교회를 처음 방문하신 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하늘문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교단 평남노회에 소속된 교회로, 같은 교단에 영락교회, 새문안교회, 소망교회 등이 있습니다. 같은 노회에 주님의 교회, 온누리교회 등이 있습니다.

1. 등록안내 - 하늘문교회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안내위원을 통해 등록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2. 정규예배 시 '생활 속 거리두기(1m)' 방침에 따라 본당 지정된 예배석에 앉으셔서 예배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3. 경기도의 모든 종교시설에 대해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내림에 따라 2주간 주일예배를 제외한 새벽기도회, 수요기도회, 금요기도회를 쉬겠습니다.
4. 이번 주 토요일 (8/22) 청소년당은 키르키스탄 목장(신동기 집사)입니다.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일간식은 아가페 목장(김경미 권사)에서 섬겨 주셨습니다.
5. 8월 추천도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걷는 삶>, <믿음수업>, <상실의 시대를 사는 그대에게> 이상 3권입니다.

SERVICE FOR WORSHIP 예배를 위한 섬김

담당	날짜	8월 16일	8월 23일	8월 30일	9월 6일
예배기도(오전)	신동기 집사	오진석 집사	이현호 집사	박성근 집사	
예배기도(오후)	'코로나19'로 인해 없습니다.(추후 변경 가능)				
주일간식담당 (점심식사 No)	아가페목장 (김경미 권사)	엘리목장 (신경미 권사)	호산나목장 (강숙여 권사)	에스더목장 (오효근 권사)	
토요일청소(고정)	우즈베키스탄목장 (첫째주 토요일)	캄보디아목장 (둘째주 토요일)	카자흐스탄목장 (셋째주 토요일)	키르키스탄목장 (넷째주 토요일)	

하늘문 교회를 위한 성도들의 기도제목

1. 2020년도 남-여 목장과 섬기는 목자들을 위해서
2. 교회학교(유치아동부, 중 고 학생부, 청년부)와 섬기는 교사들을 위해서
3. '코로나19'로 인해 장기간 교회출석이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4. '코로나19'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하루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5. 우리 교회가 섬기고 있는 에이미 양 선교사님(U국)과 신완호 선교사님(몽골), 다문화 사랑의 섬터(함안), 온누리비전교회(양구) 사역지와 사역을 위해서

삶의 자리에서 매일 기도 부탁드립니다.

HANEULMUN VISION MESSAGE

하늘문 교회 사명선언문

우리는 예수 닮은 성숙한 그리스도의 제자를 양육하여 교회와 세상 가운데 예수향기로 살게 하며 하늘과 세상을 감동시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하늘문 교회 비전

- * 은혜로운 예배를 드리는 교회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임재와 능력을 체험하고 치유와 회복의 변화가 일어나는 예배를 지향합니다.
- * 사랑으로 하나된 행복한 교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되심으로 다름과 분열이 아닌 오직 사랑으로 서로 섬겨주고 세워주는 사랑의 공동체, 행복한 공동체를 지향합니다.
- * 다음세대를 향한 꿈을 디자인하는 교회
신앙의 대를 잇도록 다음 세대를 제대로 양육하며 믿음으로 부모들과 함께 기도하며 더 큰 비전을 품고서 세계를 꿈꾸는 다음세대를 세우는 것을 지향합니다.
- * 지역사회를 섬기며 문화를 이끌어 가는 교회
예향카페, 미니도서관, 문화아카데미 등을 통해 지역사회를 섬기며 교회가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문화를 공유하며 올바른 문화가 정착되는 것을 지향합니다.
- * 세계 열방을 선교하는 교회
주님의 지상명령에 순종하여 열방을 품고서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선교적 사명을 지향합니다.

■ 찾아오시는 길



섬기는 이 ■ 부목사 : 김묘상 ■ 전도사 : 박일선 ■ 시무장로 : 유중열, 김윤식
■ 협동장로 : 신태식 ■ 반주자 : 신혜인, 허찬송 ■ 방송실 : 권다정

 **대한예수교장로회**
하늘문교회
HANEULMUN Presbyterian Church

문의전화 : 031-595-1534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2536
(우)12192

http://www.haneulmun.com



HANEULMUN'S Happiness

하늘문교회 행복초대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안에서 존귀하게 자신의 삶을 발견하며 삶의 행복을 찾도록 여러분을 돕고자 합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하늘문교회
HANEULMUN Presbyterian Church

담임목사 허영진
Pastor Young Jin Hur

1부(오전 9:30), 2부(오전 11:00) 인도 : 허영진 목사

예배로 나아감

*예배로 부름	인도자
*성서교독	다같이
*경배찬송	다같이
*참회기도	다같이
*신앙고백	다같이

찬양과 기도

찬송	315장(통 512장)	다같이
대표기도	(1부인도자, 2부찬양가집사)	

봉헌과 말씀

성 경 봉 독	창 32:22-28	인 도 자
자녀를 위한기도		허영진 목사
봉 헌 기 도		인 도 자
말 씬 선 포	‘빈손들과나아가’	허영진 목사

친교와 축복

교 회 소 식	인 도 자	
*결 단 송	620장	다 같 이
*축 도	허영진 목사	

(*는 일어섭니다)

이달의 말씀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로마서 12장 11-12절

◆헌금은 들어오시기 전, 준비된 헌금함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쉽니다.’



WEEKLY WORSHIP 주중예배

수요예배 저녁 7:30 로마서 강해 허영진 목사
이번 주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쉽니다.

금요기도회 저녁 9:00 기도를 논하다 허영진 목사
이번 주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쉽니다.

새벽기도회 새벽 5:30 은혜의 말씀묵상 허영진 목사
(월~금) 이번 주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쉽니다.

◆우리는 온 맘 다해 드리는 영적 예배자입니다. 예배에 성공합시다.◆

단지 앞으로 나아갈 뿐이다

오랜 장마가 끝날 줄을 모른다. 연일 쏟아지는 비로 고온다습한 날씨는 삶을 지치게 한다. 가을의 문턱에 들어선다는 입추가 지난 지 오래다. 이러다가 제대로 된 맑은 여름하늘 한 번 보지도 못한 채 여름을 보낼 것 같다. 이러다가 언젠가 다시금 선선한 가을바람이 불겠지. 계절의 변화를 기대하면서 세월의 흐름을 새삼 느껴 본다. 이렇듯 세월의 흐름은 빠른데 비해, 삶의 무게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하는 것 같아 때론 곤혹스럽다. 세월이 그렇게 사람 힘으로는 앞당기거나 늦출 수 없는 창조주의 섭리에 따르다 보니 자연스레 기쁨도 회한도 연속해서 일어나는가 보다. 참 이상한 세상이 되어버렸다. 아니, 정확히는 이상한 사람이 되어버렸다. 몸이 불편하지 않는 다음에야 몸이 편하면 마음도 편하다는 게 말이 안 되는데, 자꾸만 몸 아끼고 몸 사리는 버릇이 늘어만 가는 것 같아 낭패다.

이곳에 교회를 이전하고서 터를 잡은 지도 벌써 여러 해가 지났다.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을 다 살아보았으니 4계절에 대한 호불호가 분명해졌다. 그 가운데 조금 있으면 찾아 올 낙엽 뒹구는 가을은 참 좋다. 한껏 길어진 밤 시간을 통해 묵상의 시간과 함께 독서의 즐거움에 한껏 빠져 볼 수 있어서다. 그러다가 또 얼마 있지 않으면 가장 꺼리는 계절인 혹한의 겨울이 찾아올 것이다. 추위에 약해서다. 지난 겨울이 시작되면서 기도했다. “주님, 혹독한 추위도 없게 하시고, 무엇보다 눈 좀 덜 내리게 해주소서.” 기도의 응답이었을까. 정말 46년 만의 따뜻한 겨울이었다. 거의 눈도 내리지 않았다. 그런데 그 따뜻한 겨울로 인해 깨어난 수많은 노래기 같은 벌레로 인해 지금까지 고생이다. 이제 기도가 바뀌었다. “주님, 겨울은 겨울답게 춥고, 여름은 여름답게 덥게 하소서.”라고 말이다. 그러니 참 연약하다. 그러나 어찌랴! 기도를 무를 수는 없고, 단지 앞으로 나아갈 뿐이다.

‘먹을 가까이 하면 검어진다.’는 뜻의 근묵자흑(近墨者黑)이라는 말이 있다. 비단 나쁜 것에만 적용되는 말은 아니라고 억지로 우긴다면 무릴까. 그러면 믿음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 가능하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눈에 보이고 귀에 들려진 그대로 갇아주신다는 능력의 말씀을 들려준 다(민 14:27~28).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한 치도 틀림없는 말씀이다. 그러니 무엇을 두려워하겠는가. 조금은 불편하고 조금은 부담스럽고 조금은 힘겨운 삶의 여정일지라도 ‘믿음 안에서 제대로 사는 길은 가끔 좁고 험하고 가시덤굴에 덮여 있는 수가 있다.’고 대답하면 어떨까. 코로나19로, 오랜 장마로 인해 고단한 인생이지만 믿음으로 단지 앞으로 나아가 뿐이다.

Written by 허영진